

벤처천억기업, 일자리·매출·R&D 늘려 허리역할 '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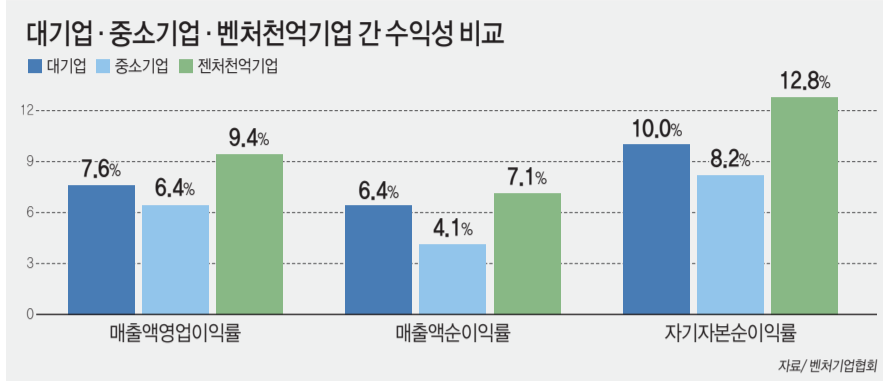
(매출 1천억원)

벤처천억기업 기념행사

지난해 총 572곳으로 증가
전체종사자 수도 4% 늘어
“스타트업에 꿈과 희망을”

2011년에 창업한 경기 화성의 디엘티. TV나 PC모니터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2016년 당시 60명이던 임직원이 지난해엔 무려 2배가 넘는 124명으로 늘었다. 디엘티는 직영 판매방식보다 흡소품, 이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고 해외시장을 공략한 결과 914억원(2016년)이던 매출이 1011억원(2017년)으로 '1천억'을 처음 돌파했다.

2012년 당시 1000억원 매출을 넘어선 경기 성남의 모트렉스.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을 생산하는 모트렉스는 관련 제품을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40여개 차종에 112개 모델을 공



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2095억원, 임직원수 270명이던 이 회사는 37%가 연구개발(R&D) 인력으로 관련 분야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 1000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증가와 함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513곳이었던 벤처천억기업은 지난해 572곳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는 1일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17 벤처천억기업'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준학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의 성공 모델이자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인 벤처천억기업이야말로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갈 선도자로, 이들 기업이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꿈과 희망을 달라"

고 당부하고 "앞으로 벤처천억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벤처천억기업 조사는 2005년부터 시작했다. 당시엔 68곳만이 '천억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천억벤처는 453개(2013년)→460개(2014년)→474개(2015년)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기준 572곳의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은 130조원으로 전년의 112조원보다 16.4%나 늘었다. 이들의 총매출은 삼성, 현대차, SK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매출이 1조원을 넘는 기업도 11곳으로 1년전보다 4곳이 늘었다. 네이버, 코웨이, 엔씨소프트, 유라코퍼레이션, 에스에프에이, 휴맥스, 성우하이텍, 네오플, 토타, 서울반도체가 그들이다.

벤처천억기업들은 성장성, 고용창출, R&D 투자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대비 2017년 현재 평균 매출액

은 전년 대비 15.8% 늘었다.

특히 3년 연속으로 20% 이상 매출성장을 기록한 소위 '가젤형 벤처천억기업'은 28개에서 32개로 14.3%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수도 20만 7293명에서 21만 5862명으로 4.1% 늘었다. 같은 기간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는 368.8명에서 384.1명으로 15.3명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율은 2.5%로 1.5%인 대기업, 0.7%인 중소기업을 훌쩍 넘어섰다.

홍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에 기술변화 대응 속도와 유연성 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 벤처기업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선도할 주역임을 나타내는 방증"이라며 "벤처천억기업 하나하나가 앞으로 성장할 잠재 유니콘으로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강력한 후원자가 돼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코웨이 이혜선 대표이사(왼쪽 세번째)가 직원들과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 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 정수기·공기청정기 서비스지수 '1위'

코웨이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AS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는 표준협회와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 개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이다.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구매해 이용해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코웨이는 정수기 AS 부문에서 2002년 처음으로 1위에 뽑힌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2회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다. 코웨이는 올해 처음 신설된 공기청정기 AS 부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코웨이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AS 부문에서 각각 75.2점, 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서비스랩 운영, 코디온 서비스 시행, 서비스 책임제 도입 등의 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코웨이는 지난 5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험과 기본 좋은 경험을 설계하는 혁신 공간 '서비스랩'을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랩은 '고객의 시선으로 진실되게 바라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로 고객 경험을 혁신한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한 코웨이는 고객들이 서비스 제공 전·후의 제품 점검 현황을 모바일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코디온(Cody-On)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동아제약·박상현 백혈병 어린이 위한 '2억' 기부

(프로골퍼)

동아제약은 1일 박상현(35·동아제약) 프로골프 선수와 함께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방문해 소아암 어린이 치료를 위한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과 오연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박상현 프로골프 선수 등이 참석했다.

동아제약은 2015년부터 박상현 선수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박상현 선수는 한국프로골프(KPGA)투어에서 시즌 3승을 올리며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박상

현 선수는 지난 9월 막을 내린 신한동해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 우승상금 중 1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후원사인 동아제약도 박상현 선수의 기부 소식을 듣고 기부에 동참하며 힘을 보탤다.

기부금 2억원은 박상현 선수가 기부한 1억원에 동아제약이 동일한 금액의 기부금을 출연하는 1:1 매칭 방식으로 마련됐다. 기부금은 소아암 어린이 10명의 치료비에 쓰일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안정 위해 자사주 45만주·155만주 매입

오늘부터 장내매수로 취득 예정
기업가치 보존해 책임경영 지속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금일 이사회를 개최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셀트리온의 취득 예정 주식은 총 45만주, 978억7500만원 규모다. 셀트리온헬

스케어의 취득 예정 주식은 987억3500만원 규모, 총 155만 주다. 각 사는 2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다.

경영진은 최근 주식 시장 약세 및 주가 하락에 따라,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내 자사주 매입과 함께 약 495억 원 규모의 우리 사주 매입도 동시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회사의 본질적 가치 및 성장성에 대한 확신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보존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JW중의제약 "황금돼지해 함께할 인재 찾습니다"

JW그룹이 2019년 황금돼지해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JW그룹은 '2018년 하반기 정기공채'를 실시하고 공채 105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부문은 △의약품, 미용성형, 의료기기, 진단·영상장비 등 영업·서비스기술 △경영관리, 재무관리 등 일반관리 △신입약사 직군이며 이번 달 14일까지 JW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jw-group.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영업 분야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기술 분야는 전기·전자, 의공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에 한해 채용하며 신입약사의 경우 약사자격증 소지자 및 예정자를 선발한다. 장애인과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한다.

서류전형은 통과하면 인공지능(AI)

인적성검사, 실무면접, 임원면접 등을 거치게 된다. 특히 이번 정기공채에서는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현장 실무면접을 도입했다. 전북, 전남, 강원 등 지역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선발된 신입사원은 그룹 공통 채용 후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 지주사인 JW홀딩스를 비롯한 JW중의제약, JW신약, JW메디칼, JW바이오사이언스 등 회사에 배치된다.

회사 관계자는 "직무 적합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AI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전형 단계에서 보다 다각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찾아가는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등 우수한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 '소방관 처우 개선' 3억 기탁

에이스침대는 에이스경남 안유수 이사장(에이스침대 회장·사진)이 지난달 28일 강원도 홍천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3억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는 화염과 연기가 분출돼 진입조차 어려운 '최성기' 상태였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고군분투로 집 안에 혼자 있던 아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다.

안 이사장은 "기사를 통해 1000도 안팎의 화마 속에서 3살 아이를 구조해 낸 소방대원의 까맣게 타버린 소방 헬멧을 보게 됐다"며 "헬멧이 녹아 내릴 정도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소방관의 사명감에 감명받아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 이사장은 앞서 부산 소방관 치료비와 사기진작 격려금, 순직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에도 각각 3억원씩 총 12억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